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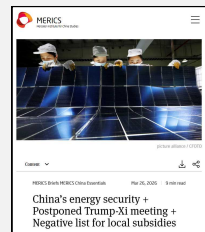
“이란 전쟁발 석유 충격 속 중국 에너지 안보 전략의 성과”

“Faced with Iran war oil shock, China’s bet on energy security is paying off”

» **저자** : MERICS

» **일자** : 2026년 3월 26일

» **출처** :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https://merics.org/en/merics-briefs/chinas-energy-security-postponed-trump-xi-meeting-negative-list-local-subsidies>



- ❖ 이 글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촉발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상당한 에너지 회복력을 확보하게 된 배경과 그 전략적 의미를 분석한다. 중국은 여전히 중동산 석유 의존도가 높지만, 지난 수년간 에너지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재편해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크게 낮췄다.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전력 시스템 전기화, 화석연료 수입선 다변화, 석탄 생산 유지 등을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약 85%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 ❖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후정책이나 산업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탈탄소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이나 친환경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포함하지만, 그 핵심 목적은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즉,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 리스크 관리 전략의 일환이다.
- ❖ 중국의 에너지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2025년 중국의 전력 소비는 10조 kWh를 돌파하며 EU, 러시아, 인도, 일본을 합친 수준을 넘어섰다. 이는 제조업 확대와 함께 인공지능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 ❖ 에너지 구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석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에 힘입어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변화도 나타났다. 향후 2026~2030년 5개년

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시스템의 중심으로 두고, 대규모 에너지 기지 구축과 전력망 유연성 강화, 설비 용량의 대폭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 ❖ 이와 함께 중국은 에너지 전환을 기술 경쟁력 확보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는 향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핵심 산업으로 인식되며, 중국은 이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현재 녹색산업은 국내총생산의 약 10%를 차지하며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고, 관련 제품의 수출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지배력도 강화되고 있다.
- ❖ 결론적으로 중국의 에너지 전략은 환경, 산업, 안보가 결합된 복합적 구조를 갖는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다원화된 에너지 시스템은 중동 전쟁과 같은 외부 충격의 영향을 완화하고, 동시에 기술 경쟁력과 경제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탈탄소 정책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높은 국제환경에서 국가 생존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 전략으로 이해된다.